

전일동향

저가매수세 유입에...1,342.80원에 마감

8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340.50(15:30 기준) 대비 3.90원 상승한 1,344.4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장 초반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엔화 가치 급등에 1,336.30원 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저가매수세 유입과 국민연금 달러 매수 소식에 반등했다. 이후 뉴욕장에서 엔화 강세 흐름 속 달러인덱스 하락에 영향 받으며 1,342.8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68.32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4.40	1346.90	1336.30	1342.80	1341.10
	엔화	866.79	875.68	866.62	868.32	-
	유로화	1563.11	1564.98	1554.30	1554.30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7	-1.78	-4.98	-10.86
	결제환율(수입)	-0.02	-0.5	-2.75	-7.0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회피 심리에도...1,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45.60, 15:30 기준) 대비 5.65원 하락한 1,339.60원에서 최고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발 위험회피 심리에도 달러 약세와 수급 영향에 상단 제한될 전망이다. 간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목전까지 밀어 올리면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유입된 점은 금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공단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BOJ 긴축 기대와 일본계 자금의 본국 회귀 가능성이 엔화 절상에 기여하며 나타난 엔화 강세에 달러인덱스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 수출업체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매도 우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8.00 ~ 1348.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316.2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65원 ↓
	■ 美 다우지수 : 52786.07, -628.18p(-1.1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49.7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700 억원